



3면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민주당 입당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음 1월 29일) 제273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27억원 투자

도, 생태계 혁신성장 등 3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15일부터 지원 대상 모집

전북도가 뿌리기업의 지속성장과 인력양성, 기술혁신을 위한 2021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총 27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뿌리기업 현장의 애로 및 수요를 반영해 매출 증대를 위한 생태계 혁신성장, 연구개발,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는 3대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 공정혁신과 수출자립화를 위한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지원사업'은 ▲현장의 애로 개선 지원, ▲공정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고속 뿌리기술 전문가 채용, 젊은 뿌리기술인 양성 등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태계 혁신성장지원을 통해 지난해 11명의 신규 고용, 53억원의 신규매출 성과를 거뒀다.

또한, 뿌리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 후 44명이 도내에 취업한 바 있다.

핵심뿌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제조기반기술 R&D지원 사업'은 ▲수요기업연계 기술개발과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제품 개발을 지원, ▲핵심 뿌리기술의 국가 R&D 사전기획 컨설팅



은 힘을 다해!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전주시 환경관리원 공개 경쟁 체력평가가 열린 11일 응시생들이 최선을 다해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다.

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R&D 지원을 통해 구매확약기술·제품개발 9건, 핵심 뿌리기술 시제품 제작 8건, 국가 R&D 기획지원 1건을 지원했다.

공정개선과 도내 특성화고 대상 뿌리기술인 양성교육, 수요기업연계 기술개발지원, 유해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2023년 43개 목표)을 육성하며, 해외 수출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뿌리산업 재도약을 위해 뿌리산업 육성 전략마련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공정개선과 도내 특성화고 대상 뿌리기술인 양성교육, 수요기업연계 기술개발지원, 유해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2023년 43개 목표)을 육성하며, 해외 수출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뿌리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4차산업 대응형 뿌리기술과 소재·부품·장비의 대응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뿌리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원 강화로 첨단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뿌리기업지원 대상은 오는 15일부터 모집하며,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pms.jat.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반도체 국산화 가능성 열다

전북대 심규환 교수 창업 '시지트로닉스' GaN 트랜지스터 소자 반도체 국내 첫 개발

화합물 기반의 반도체인 GaN 트랜지스터(Transistor) 소자를 전북대학교 실험실 창업으로 설립된 시지트로닉스(대표 심규환)가 ETRI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외국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비교적 쉬운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조만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GaN 반도체의 국산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시지트로닉스 전경(사진 위)과 시지트로닉스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사진 아래)

RF 동작주파수·효율 특성 우수 패키지 형태 제품으로 판매 가능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형성하는 '광 사진전사'로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제조공정 또한 안정돼 수율을 70% 이상으로 충분히 높일 수 있어 생산성까지 확보됐다. 웨이퍼나 칩, 패키지 형태의 제품으로도 판매가 가능해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된다.

이 개발 소자가 상용화되면 미래 무선 이동통신과 자동차나 위성통신, 군수용 레이더, 무전기, RF 파워 발생기, 고온에서 내환경이 요구되는 자동차용과 산업용 센서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환 교수(시지트로닉스 대표)는 "6 GHz 대역의 GaN RF 제품에 대한 라인업(RF 전력 10~200W 급)을 완료해 내년에 생산 판매를 개시하고, 2023년에는 500억 원을 투자해 6 GHz 전용 생산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고도화를 통해 5G(28 GHz), 위성통신(35 GHz), 군수레이더(64 GHz), 자율자동차(77 GHz)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에코시티·가련산 등 7곳 공무원 땅투기 조사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

전주시,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찾기" 필요시 의심지역 추가 조사

지구와 에코시티, 호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총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추가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1, 2차에 대해 불법전매 446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했고, 작년 12월 17일 전

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가격급등 시기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로 신고된 2만 5961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 특별조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6건의 불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현재 800여명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